

혜음 : 그 시작.

‘국어사’ 기출문제 풀이

『국어사개설』에 바탕을 두고

Third Edition

2001년~2008년 ‘국어사’ 영역



edited & arranged by 오종민 for ksy

by
OH JONG-MIN

phone : 010-4507-8441 / e-mail : orieksy@hanmail.net

homepage : www.hyeyum.net / twitter : [@orieksy](https://twitter.com/orieksy)

2001년도 국어사 문제 풀이

5. <보기>의 자료를 중심으로 ‘구개음화’ 현상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총 7점)

< 보 기 >

- ① 굳이→[구지], 해돋이→[해도지], 밭이→[바치], 붙이다→[부치다]
- ② 마디(節)→[마디], 어디→[어디], 디디다→[디디다], 티끌→[티끌]

5-(1). ①을 바탕으로 구개음화를 정의하고, ①과 달리 ②의 어레들이 구개음화를 겪지 않은 까닭을 국어사적인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3점)

①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구개음화란, 반모음 ‘ㅣ’나 모음 ‘ㅣ [j]’ 앞에서 치음인 ‘ㄷ, ㅌ, ㄸ’가 경구개음인 ‘ㅈ, ㅊ, ㅉ’ 등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현대 국어의 자음 체계에서 ‘ㅈ, ㅊ, ㅉ’ 등은 ‘센입천장소리(경구개음)’인데, 근대 이전에는 이들이 ‘잇몸소리(치음)’였다. 이들이 근대 국어 시기에 이르러 치음에서 경구개음으로 변화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뒤에 치음 ‘ㄷ, ㅌ, ㄸ’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앞에서 ‘ㅈ, ㅊ, ㅉ’로 변화하는 동화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①의 예가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까닭은,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뒤에 ‘ㅣ’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와 만나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②의 경우에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를 국어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마디’, ‘어디’, ‘디디다’ 등이 중세 국어에서는 ‘마딴’, ‘어딴’, ‘딴디다’로 쓰였기 때문이다. 즉, ‘ㅣ’나 ‘ㄴ’은 이중 모음이었으므로, 구개음화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남아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구개음화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말들이 19세기에 들어 ‘딴, 티’ 등이 ‘디, 티’로 변하게 된 것이다. (견디->견디-, 무딴->무딴-, 썩>썩) 이는 17세기부터 나타난 현상으로 ‘ㄱ’이 ‘ㄴ’으로 변화하고, 다시 ‘의>ㅣ’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불휘>불희>뿌리)

☞『국어사개설』, pp.207~213

2002년도 국어사 문제 풀이

4. 문법 규칙의 변천과 관련하여, <보기>의 자료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문법적 특성의 예를 5가지만 찾으시오. 그리고 그 예에서 알 수 있는 문법적 특성을 밝히고 그 이후의 변천을 쓰시오. (5점)

<보 기>

- (1) ㄱ. 이 쟁리 너희 종가 (월석 8:94)
 ㄴ. 얻논 藥이 므스 것고 (월석 21:215)
- (2) 太子를 請ᄃᆞᆫ스바 이받즈보려 ᄃ노닛가.
 大臣을 請ᄃᆞ야 이바도려 ᄃ노닛가. (석상 6:16)
- (3) ㄱ. 슬픔 업시(두언 25:53)
 ㄴ. 두루 아니ᄃᆞᆫ 아니 ᄃ시나(금강삼가 5:10)
 ㄷ. 그릿 혼 조초ᄃᆞ야(석상 6:8)

< 예 >	< 문법적 특성 >	< 변 천 >
① 종가, 므스것고	의문 보조사 ‘가’와 ‘고’에 의해 판정의문문(‘-아/-어’형 계열), 설명의문문(‘오’형 계열)으로 나누어진다. 판정의문문 ‘-아/-어’형의 대표적인 종결 어미는 ‘-가’이며, 설명의문문 ‘-오’형의 대표적인 종결 어미는 ‘-고’이다. ☞『국어사개설』 p.179, ☞『학교문법의 이해』 p.435	현대 국어에 선 설명의문 문과 판정의 문문의 구분 이 사라지고, 의문사 유무 에 의해서만 의문문이 구 분된다.
② 얻논 藥(약)	특수 선어말 어미 ‘-오-’가 나타나는 경우 중에서 관형사형에 나타나는 선어말 어미 ‘-오-’는 꾸밈을 받는 피수식어가 의미상 목적어(대상)일 때이다. 그러나 예외가 많아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의도법 어미 ‘-오-’는 사실의 객관적 진술에는 사용되지 않았고, 주관적 의도가 가미된 동작(또는 상태)의 진술에 사용되었다. 이것은 설명문(평서문)의 서술어에서는 화자의 의도를, 의문문의 서술어에서는 청자의 의를 나타내었다. 관형절에서는 동작 주체의 의도를 나타내었다. (예)니르고져 ᄃᄃ 배이셔도) ☞『국어사개설』 pp.171~172, ☞『학교문법의 이해』 p.427	15~16세기에 걸쳐 사라졌 음.

③ ㅎㅅㅂㅅ, 이받즈보려	· ‘술, 즐, 술’은 객체높임법(겸양법)의 선어말 어미로서, 객체(목적어나 부사어로 쓰인 대상)에 대한 높임을 나타낸다. 이들은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달리 나타남. · 어간 말음이 ‘ㄱ, ㄴ, ㄷ, ㅎ’이면 ‘술’(㉠넙습고, 막습거늘, 노줍고(놓+습+고), 돕스븄니, 빗습더니) · 모음과 ‘ㄴ, ㄹ’(유성음)이면 ‘술’(㉡보습건대, 안스ㅂㅅ, ㄱ초스ㅂㅅ) · ‘ㄷ, ㅈ, ㅊ’이면 ‘즐’(㉢든줍게, 마줍더니, 얻즈ㅂㅅ) · 매개 모음을 취하는 어미나 모음 앞에서는 ‘빙’으로 불규칙 활용을 한다. (㉣돕스븄니, 얻즈ㅂㅅ, ㄱ초스ㅂㅅ) · 그리고 뒤에 오는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되면 ‘빙’은 ‘ㅂ’으로 교체되었다. ☞『국어사개설』 p.172, ☞『학교문법의 이해』 p.424	공손법(상대높임법)의 선어말 어미로 바뀜(-읍-)
④ ㅎ노닛가	‘-노닛가’는 어미 ‘ㅎ야썸’체의 의문형 어미. (ㄴ+오/우→노) · ㅎ쇼썸체 : ㅎㄴ이다, ㅎ리이다, ㅎㄴ잇가 · ㅎ야썸체 : ㅎㄴ이다, ㅎ노닛가 ☞『국어사개설』 p.173, ☞『학교문법의 이해』 p.428	현대 국어에 서는 사라졌음
⑤ 슬픔 업시, 아니 ㅎ	중세 국어의 관형사형 어미 중에 ‘-ㄱ, -ㄴ’은 명사형으로 쓰인 예가 있다. (다울 업슨 긴 ㄱㄹ문 니섬니서 오놏다, 德이여, 福이여, 호닐 나스라 오소이다) 이러한 명사적 용법은 ‘-ㄱ, -ㄴ’을 명사화 접미사로 보게 된다면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지만, 명사형 전성 어미로 본다면 현대 국어에는 없는 명사적 용법을 지닌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다울’의 ‘ㅅ’은 종래 사잇소리 표기의 일종으로 보아 주격 축음이라고도 하였으나, 관형사형 전성 어미 ‘-ㄱ’ 뒤에 나타나는 된소리 부호인 ‘ㅇ’의 이자(異子) 표기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 ☞『국어사개설』 pp.188~189, ☞『학교문법의 이해』 p.429	현대 국어에서 관형사형 어미의 명사적 용법은 사라지고, 관형사적 용법만 지님

2003년도 국어사 문제 풀이

6.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7점)

(7) 聲有緩急之殊 故平上去其終聲不類入聲之促急。不清不濁之字 其聲不厲 故用於終則宜於平上去 全清次清全濁之字 其聲爲厲 故用於終則宜於入。所以○ㄴ○ㄷ○ㄹ六字爲平上 去聲之終 而餘皆爲入聲之終也。然ㄱ○ㄷㄴㄹㄷㄹㄹ八字可足用也。如빛꽃爲梨花 열의갓爲狐皮 而入字可以通用故只用入字。(〈訓民正音解例本〉, 1446년)

(나) **몬(莫)**: 太子를 **몬** 어드실씨 (<용비어천가>, 1447년)

못(池): 𪛗爲池 (<훈민정음 해례본>, 1446년)

뜻(意): 이 뜻들 넋디 마르쇼셔 (<용비어천가>, 1447년)

(대) 굳고(固) - 굿거든(固) (<언해두창집요>, 1608년)

맛(味) - 만(味) (<동국신속삼강행실도>, 1617년)

(라) 한문 못흐는 인민은 나모 말만 듯고 무슴 명녕인줄 알고 이편이 친히 그 글을 못 보니 그 사름은 무단이 병신이 됴이라. 한문 못흐다고 그 사름이 무식흔 사름이 아니라 (중략) 우리 신문은 빈부귀천을 다름업시 이 신문을 보고 외국 물정과 너지 사정을 알게 하랴는 뜻시니 (<독립신문> 창간사, 1896년)

(마) 굳은 땅에 물이 권다. 웃는 낮에 침 못 뱉는다.

(바) 옷이 날개다. 옷 입고 가려운 데 긁기.

6-(1). ㄱ의 밑줄 친 부분에서 언급한 음절말 ‘ㄷ, ㅅ’ 표기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 왔는지, ㄱ~ㅅ의 밑줄 친 예만을 사용하여 설명하시오. (3점)

☞ 15세기에는 종성에 ‘ㄷ, ㅅ’을 모두 사용하였다. (㉞)에서 밑줄 친 부분은 종성에 8자음 즉 ‘ㄱ, ㅇ, ㄷ, ㄴ, ㅂ, ㅍ, ㅅ, ㄹ’이 사용될 수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㉟)에서 ‘뭉(莫), 못(池), 뜻(意)’은 ‘훈민정음’과 ‘용비어천가’에 나타난 예로 종성에 ‘ㄷ, ㅅ’이 모두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특히 ‘뭉(莫), 못(池)’은 ‘ㄷ, ㅅ’의 차이로 의미가 구별된다. 또한 ‘뜻(意)’은 이 ‘ㅅ’처럼 연음되었을 경우에도 ‘ㄷ’으로 발음되는 것으로 보아 이는 당시에 종성 ‘ㄷ, ㅅ’의 표기는 그 발음에서 변별성이 있었음으로 보여준다.

근대 국어에서 17세기 초반 무렵에는 ‘ㄷ, 스’의 표기가 혼란하였다. 17세기 초반의 문헌

즉 (ㄷ)를 보면 같은 단어를 표기하면서 ‘굳고(固) - 굳거든(固)’, ‘맛(味) - 만(味)’으로 ‘ㄷ, ㅅ’을 혼란되게 사용하고 있음을 통해 이 당시 ‘ㄷ, ㅅ’의 표기가 혼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18세기부터는 ‘ㄷ’은 점차 없어지고, ‘ㅅ’만으로 통일되는 강한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심한 예로는 ‘미더(信)’를 ‘밋어’(명의록언해)라고 표기한 것조차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다가 19세기 후반에는 ‘ㅅ’으로 통일된다. (ㄷ)에서 ‘못’의 종성이 ‘ㅅ’인 것이 그 예이다. 이는 당시 종성 ‘ㄷ, ㅅ’이 ‘ㅅ’으로 통일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는 종성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7자음만이 사용되게 된다.

현대 국어에서는 종성에 ‘ㄷ, ㅅ’이 모두 사용된다. (ㄷ)에서 밑줄 그은 ‘굳은, 웃는, 못’ 등이 그 예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1933년 ‘한글맞춤법 통일안’ 이후 표의주의 표기법을 택하여, 그 본래의 뜻을 밝혀 적는다. 그러므로 종성의 ‘ㄷ, ㅅ’은 ‘ㄷ’으로 발음하나 그 표기에서는 ‘ㄷ, ㅅ’이 모두 사용된다.

☞『국어사개설』 p.133, pp.204~205

6-(2). (ㄷ)에서 어휘의 함축적 의미와 문장 성분의 호응이 현대 국어와 다른 것을 찾아 각각 하나씩 쓰시오. (2점)

① 어휘의 함축적 의미가 다른 것

‘인민’의 의미가 ‘국민’의 뜻에서 ‘사회주의 사회’의 국민(동무)로 변함.

② 문장 성분의 호응이 다른 것

‘빈부귀천을 다름없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현대 국어와 다르다. 현대 국어에서는 ‘빈부귀천의 다름없이’로 문장 성분이 호응된다.

2004년도 국어사 문제 풀이

4. “국어의 역사를 안다.”라는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모은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7점)

- (가) ① 내 헝마 命終호라 <월인석보 9, 36>
 ② 내 아래브터 부텃기 이런 마를 몬 듣즈븍며 <석보상절 13, 44>
 ③ 내 룡담헝다라 <석보상절 6, 24>
 ④ 내 겨지비라 가져가디 어려불씨 <월인석보 1, 13>
 ⑤ 衆生의 福이 다으거다 <석보상절 23, 28>
 ⑥ 내 이를 爲헝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덟 字를 땡그노니 <훈민정음 언해>
 ⑦ 불휘 기픈 남근 브르매 아니 뵈씨 곶 도코 여름 하느니 <용비어천가 2장>
 ⑧ 崔九의 집 알픽 몇 디월 드러노 <두시언해 16, 52>
 ⑨ 내 이제 흰히 즐겁과라 <범화경언해 2, 137>
- (나) ① ㅈ는 니쏘리니 卽즉字꼱 처섬 꺾야 나는 소리 ㄱㅌ니 글바쓰면 慈甝字꼱 처섬 꺾야 나는 소리 ㄱㅌ니라 ㅈ는 니쏘리니 侵침ㅈ字꼱 처섬 꺾야 나는 소리 ㄱㅌ니라 <훈민정음 언해>(15세기)
- ② 우리 나라에서는 ‘다, 더’를 ‘쟈, 저’와 똑같이 발음하고, ‘타, 터’를 ‘차, 처’와 똑같이 발음한다. 이는 단지 턱을 움직임에 있어서 이것은 어렵고 저것은 쉽기 때문일 뿐이다. (...중략...) 또 정 선생님께 듣기를, 그분의 고조부 형제 중 한 분의 이름은 ‘知和’이고 또 한 분의 이름은 ‘至和’였는데, 당시에는 이 둘을 혼동되게 부른 일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디’와 ‘지’의 혼란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임을 알 수 있다. (如東俗다더呼同차저 타터呼同차처 不過以按顧之此難彼易也 (...중략...) 又聞鄭丈言 其高祖昆弟 一名知和 一名至和 當時未嘗疑呼 可見디지之混 未是久遠也) <유희, 언문지>(19세기초)

- 4-(1). 중세 국어의 선어말어미 ‘-오-’에 대하여 지도하고자 한다. (가)에서 ‘-오-’가 포함된 4가지 예문을 찾아, 그 번호와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를 쓰시오. (3점)

<조건> ‘-오-’가 포함되어 있는 어절이나 음절을 찾아 형태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근거를 제시할 것. (예 헝니 : 헝+니, 흙 : 헝+옴)

예문 번호	근 거
①	命終호라 : 命終호- + -오- + -라
③	통담호다라 : 통담호- + -다-(-더- + -오-) + -라
⑥	팅ᄃ노니 : Tingᄃ- + -노-(-ᄃ- + -오-) + -니
⑨	즐겁과라 : 즐겁- + -과-(-거- + -오-) +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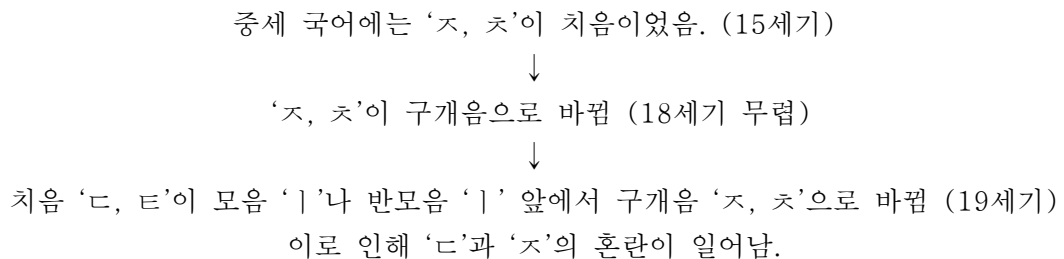
『국어사개설』 p.171, 『학교문법의 이해』 p.425, p.427

4-(2). (내)의 두 자료를 함께 고려하여 알 수 있는 국어사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4점)

예문 ①을 보면, 15세기 중세 국어의 ‘ㅈ, ㅉ’은 ‘니쏘리(치음)’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ㅈ, ㅉ’이 중세 국어에는 치음이었으며, 근대 국어에서는 이들 ‘ㅈ, ㅉ’이 (경)구개음으로 바뀐 것이다. 이들이 구개음이 아니라면 ‘ㄷ, ㅌ’의 구개음화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문 ②를 보면, ‘ㅈ, ㅉ’이 치음에서 구개음으로 바뀌면서, ‘ㄷ, ㅌ’ 등이 ‘ㅣ’ 모음이나 반모음 ‘ㅣ’ 앞에서 구개음 ‘ㅈ, ㅉ’으로 바뀌는 현상이 근대 국어 시기에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전의 시기에는 ‘知和’, ‘至和’를 혼동하지 않았던 것처럼 ‘디다(落) : 지다(負), 텃(天) : 천(千), 디(地) : 지(止)’와 같이 의미 분화의 변별력이 있었지만, 구개음화 현상으로 인하여 ‘디’, ‘지’의 혼란이 일어난 것이고, 이는 ‘다, 더, 타, 터’가 ‘자, 저, 차, 처’ 등으로 발음나는 것과 ‘디’와 ‘지’의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설명을 통해 확실해진다. 유희의 <언문지>가 19세기 초에 쓰여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18세기 무렵에 근대 국어 시기에 구개음화가 일어났음을 추정하게 한다.

정리하면,



※ 19세기의 ‘디’나 ‘지’의 혼란은 ‘ㅈ, ㅉ’의 구개음화를 전제로 해야 설명이 됨.

2005년도 국어사 문제 풀이

11. 다음은 “중세 국어 어휘의 쓰임을 안다.”라는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자료이다. ‘어느’를 셋으로 분류하고 그 근거를 쓰시오. (2점)

- ① 어느 뉘 請히니 (용비어천가 18)
- ② 어느를 닐온 正法眼고 (금강경삼가해 2:68)
- ③ 어니사 못 도히니잇가 (석보상절 6:35)
- ④ 國人 ㅼ들 어느 다 슬ㅼ리 (용비어천가 118)
- ⑤ 國王은 오쇼셔 龍王은 겨쇼셔 이 두 말을 어늘 從히시려뇨 (월인석보 7:26)
- ⑥ 菩薩이 어느 나라해 느리시게 히려뇨 (월인석보 2:10)
- ⑦ 현 날인들 迷惑 어느 플리 (월인천강지곡 74)

자료 번호	분류의 근거
① ⑥	체언 앞에서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의 역할. ☞『국어사개설』 p.168
② ③ ⑤	격조사와 결합한 대명사의 역할. (‘어니’: 주격 조사, ‘어늘/어느를’: 목적격 조사) ☞『국어사개설』 p.168
④ ⑦	용언 앞에서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 ‘어찌, 어떻게’의 의미로 쓰임. ☞『국어사개설』 p.168

【12~13】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7점)

- ① 식미 기픈 므른 ㄱㅁ래 아니 그출썩 <용비어천가 2, 1447년>
- ② 적은 아히를 곁으치되 <소학언해 5, 1587년>
- ③ 더본 물애 모매 븐느 ㅁ왜라 <석보상절 13, 1447년>
- ④ 모래와 흙 섯근 거슬 <가례언해 7, 1632년>
- ⑤ 三賊이 좃줍거늘 <용비어천가 36, 1447년>
- ⑥ 梵音이 깊고 微妙히샤 <석보상절 13, 1447년>
- ⑦ 고줄 받즈ㅼ시니 <월인천강지곡 6, 1449년>
- ⑧ 어마님 사라겨실 저기 <월인석보 23, 1459년>
- ⑨ 도히시며 도히실씨 大雄世尊이여 <법화경언해 5, 1463년>
- ⑩ 내 보아져 히느다 슬ㅼ씨 <석보상절 6, 1447년>

12. 다음은 ①~⑦에서 알 수 있는 국어사적 지식을 정리한 표이다. 빈 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4점)

구분	국어사적 지식	구체적인 내용
①, ②	표기법의 변화	① 이어적기(연철, 15~16세기) / ② 끊어적기(분철, 16세기 말부터) : 받침 있는 체언 또는 어간 뒤에 모음 조사나 어미가 올 때 그 받침을 조사나 어미에 이어적는 것을 이어적기(연철),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끊어적기(분철)라 한다. 물론 중세 국어 자료인 『월인천강지곡』에서도 끊어적기의 예를 찾을 수 있다. (눈에, 일을, 종을, 안아, 답아) ☞『국어사개설』 pp.134~135, ☞『학교문법의 이해』 p.460
③, ④	음가(音價)의 변화	③의 자료에서 ‘몰애’에는 ‘ㅇ’(후두유성마찰음, 15세기)가 쓰였는데, ④의 ‘모래’에는 유성마찰음 사라졌다.(17세기) 몰개>몰애>모래 : ‘ㄹ’ 뒤 ‘ㄱ’이 탈락되고 유성마찰음이 사용되었음. 용언에 있어서는 ‘올라’, ‘달름’과 같이 ‘ㄹㄹ’로 변한 예가 16세기에 보이며, ‘몰애’, ‘놀애’ 같은 명사는 ‘ㄹㅇ’형이 16세기 말까지 보이고, 17세기 문헌에 ‘몰래’, ‘놀래’와 같은 ‘ㄹㄹ’형이 보이거나 18세기에 ‘ㄹ’형으로 일반화됨. ☞『국어사개설』 pp.143~144, p.206 ③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훈민정음이 창제된 15기 중반에는 양순 유성마찰음 ‘빙’의 사용되었으나, 15세기 후반에 사라짐. 빙>[w]. 빙은 ‘ㄱ, ㄷ, ㄴ, ㄷ’과 연결되면 ‘ㅁ’으로 변화하였음. ☞『국어사개설』 pp.140~141, p.149 ③의 ‘몰애’가 ‘모래’가 되면서 음절 끝 설측음[l]이 탄설음[r]으로 바뀜
③, ⑤, ⑥, ⑦	팔종성법(八終聲法)	『훈민정음』은 종성 표기에 대해서 두 가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훈민정음』 해례에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이라고 한 것과 ‘해례 종성해(解例 終聲解)’에서 즉, ‘ㄱㅇㄷㄴㅁㅂㅅㅇ 八字可足用也’라 하여 종성을 사실상 8자 체계로 규정한 것이다. ⑤의 ‘좃-’과 ⑦의 ‘꺃-’에서는 종성부용초성이라 하여, 종성은 초성을 다시 사용함으로써 형태를 밝혀 표기하였는데, 이는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에만 사용된 예외적 표기법이다. ③의 ‘븐-’과 ⑥의 ‘깁-’에서 볼 수 있는 표기는 8종성법에 충실한 표음적 표기로서, 중세국어의 일반적 종성 표기법이다. 『훈민정음 해례』(1446) 이후 최세진의 『훈몽자회』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국어사개설』 pp.132~133

13. ⑤~⑩에 쓰인 경어법을 유형별로 설명하시오. (3점)

⑤, ⑦ - 객체높임법 : 목적어나 부사어로 나타나는 대상이 주체보다 높여야 할 대상일 때 실현되는 높임법으로 선어말 어미 ‘술, 줄, 슴’에 의해 실현된다. 어간 말음이 ‘ㄱ, ㄴ, ㄷ, ㄹ’이면 ‘술’(넙습고, 막습거늘, 노잡고(놓+습+고), 뚝스븨니, 빗습더니), 모음과 ‘ㄴ, ㄹ’(유성음)이면 ‘스’(보습건대, 안스바, ㄱ초스바), ‘ㄷ, ㅈ, ㅊ’이면 ‘줄’(든죽게, 마줍더니, 얻즈바), 매개 모음을 취하는 어미나 모음 앞에서는 ‘봉’으로 불규칙 활용을 한다. (뚝스븨니, 얻즈바, ㄱ초스바) 그리고 뒤에 오는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되면 ‘봉’은 ‘ㅂ’으로 교체되었다.

☞『국어사개설』 p.172, ☞『학교문법의 이해』 p.424

⑥, ⑦, ⑧, ⑨ - 주체높임법 : 문장의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 주체를 높이는 높임법으로 선어말 어미 ‘-시/-샤’에 의해 실현된다. ⑥은 모음 어미 앞에서 ‘-샤’가 사용되었고, ⑦은 선어말 어미 ‘-시-’가 나타나며, ⑧의 ‘겨시-’는 어휘에 의한 주체높임이며, ⑨는 선어말 어미 ‘-시-’가 사용되었다.

☞『국어사개설』 p.173, ☞『학교문법의 이해』 p.424

참고로, ⑨의 ‘-르써’(감탄의 종결 어미)는 ☞『국어사개설』 p.180

⑩ - 상대높임법 :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높임법으로 선어말 어미 ‘-이-(평서형)/-잇-(의문형)’ 또는 종결 어미(ㅎ쇼서체, ㅎ야써체, ㅎ라체)에 의해 실현된다. ⑩은 종결 어미인 ‘ㅎ야써’체로, 예사 높임 또는 예사 낮춤이다. 그 밖에 아주 낮춤의 ‘ㅎ라체’와 아주 높임의 ‘ㅎ쇼서체’, 그리고 반말이 있다.

☞『국어사개설』 p.173, ☞『학교문법의 이해』 p.428

2006년도 국어사 문제 풀이

13. <보기>는 “중세 국어의 음운 변천을 안다.”라는 학습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자료이다. ‘녕’은 세종 이후에 [w]로 변했는데, 후행하는 모음에 따라 다르게 실현되었다. 밑줄 친 부분의 ‘녕’이 모음을 만나 변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합 규칙이 적용되었고, 그 변화된 모습은 어떠했는지 <예시>를 참조하여 밝히시오. (2점)

<보 기>

- ① 스^ㄴᄃᆞᆫ 軍馬를 이길씩 ᄃᆞᆫ 물리조치샤 <용비어천가 35장>
 ② 이런 더^ㄴ러븐 일 ᄃᆞᆫ 노 ᄃᆞᆫ 대 <월인석보 1, 44>
 ③ ᄃᆞᆫ 슻을 더욱 설^ㄴ비 너기샤 ᄃᆞᆫ ᄃᆞᆫ 비오듯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월인석보 8, 94>

<예 시>

	결합 규칙	결합 후 변화된 모습	현대어
ᄃᆞᆫ 슻	△+ᄃᆞᆫ>탈락(∅)	ᄃᆞᆫ 슻>ᄃᆞᆫ 슻	마음
ᄃᆞᆫ ᄃᆞᆫ 치어	이+어>여	ᄃᆞᆫ ᄃᆞᆫ 치어>ᄃᆞᆫ ᄃᆞᆫ 처	가르쳐

	결합 규칙	결합 후 변화된 모습	현대어
① 스 ^ㄴ ᄃᆞᆫ	[w]+ᄃᆞᆫ>오	스 ^ㄴ ᄃᆞᆫ>스 ^ㄴ ᄃᆞᆫ(스ᄃᆞᆫ)	시ᄃᆞᆫ
② 더 ^ㄴ 러븐	[w]+ᄃᆞᆫ>우	더 ^ㄴ 러븐>더 ^ㄴ 러운	더 ^ㄴ 러운
③ 설 ^ㄴ 비	[w]+ᄃᆞᆫ>탈락(∅)	설 ^ㄴ 비>설 ^ㄴ 이	섣 ^ㄴ 게

『국어사개설』 p.141

14. <보기>는 중세 국어의 격조사를 이해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①~⑥에 사용된 격조사를 세 종류로 분류하여 <표>를 완성하시오. (3점)

<보 기>

- ① 부테 날 爲ᄃᆞᆫ야 法을 니르시리라스이다 <법화경언해 2, 231>
 ② 아츰 뷔여든 쏘 나조히 녀고 <월인석보 1, 45>
 ③ 世尊入 神力으로 ᄃᆞᆫ외의 ᄃᆞᆫ산 사르미라 <석보상절 6, 7>
 ④ 사르미 ᄃᆞᆫ들 거스디 아니ᄃᆞᆫ노니 <월인석보 1, 12>
 ⑤ 이 지비 자려 ᄃᆞᆫ시니 <용비어천가 102장>
 ⑥ 불휘 기ᄃᆞᆫ 남ᄃᆞᆫ 브ᄃᆞᆫ매 아니 뵈ᄃᆞᆫ <용비어천가 2장>

격조사의 종류	자료 번호	분류 근거
주격 조사	①, ⑥	‘부터+ㅣ’는 ‘ㅣ’모음을 제외한 모음 뒤 ‘ㅣ’가 와서 ‘부처께서’의 의미이고, ‘불휘’는 ‘ㅣ’모음 뒤 주격 조사가 탈락된 것이며 ‘뿌리가’의 의미로 모두 주어를 이루므로 주격 조사임 『국어사개설』 p.166, 『학교문법의 이해』 p.419~420
관형격 조사	③, ④	‘世尊人 神力’는 높임명사 뒤에 ‘人’이 와서 ‘세존의 신력’이란 의미이고, ‘사르미 뜯’은 양성(陽性)의 유정명사 뒤에 ‘의/의’가 와 ‘사람의 뜯’이 되며 모두 관형어가 되게 하므로 관형격 조사이다. ‘의/의’는 관형격(속격)과 처격(부사격)에 쓰였으나, 유정물에 쓰이면 속격, 무정물에 쓰이면 처격이 되어 구별되었다. 『국어사개설』 p.166, 『학교문법의 이해』 p.419~420
처소 부사격 조사	②, ⑤	특수한 체언(무정명사) 뒤 ‘의/의’는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는데, ‘나조히’의 ‘의’는 양성 모음을 ‘나조’ 뒤에 와서 ‘저녁에’의 의미로 부사어가 되고, ‘지비’의 ‘의’는 중성 모음을 지닌 ‘집’ 뒤에 와서 ‘집에’의 의미로 모두 부사어가 되므로 부사격 조사이다. ‘애’는 모음조화 규칙에 따라 양모음 어간 뒤에서는 ‘애’, 음모음 어간 뒤에서는 ‘에’, 반모음 ‘ㅣ’나 모음 ‘ㅣ’ 뒤에서는 ‘예’로 나타났다 『국어사개설』 p.166, 『학교문법의 이해』 p.419~420

15. 다음은 “문장의 짜임과 문법요소를 안다.”라는 학습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보기>를 자료로 하여 수행한 교수·학습 활동이다. 이 과정을 완성하시오. (5점)

<보 기>	
(가)	① 文殊아 아라라 <석보상절 13, 26> ② 님금하 아르쇼셔 <용비어천가 125장> ③ 덩아 돌하 當今에 계샹이다 <악장가사, 정석가>
(나)	① 半 길 노편들 년기 디나리잇가 <용비어천가 48장> ② 景 기 엇더히니잇고 <악장가사, 한림별곡> ③ 슬후미 이어기 잇디 아니히니아 <초간두시언해 7, 14> ④ 그에 精舍ㅣ 업거니 어드리 가료 <석보상절 6, 22> ⑤ 엇데 겨르리 업스리오 <월인석보 서 17> ⑥ 어루 이기여 기리스북려 <월인석보 서 9>

15-(1). 재희는 이 자료를 공부하면서 (가)의 ①, ②를 통해 호격 조사 가운데 특수성을 띤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③의 밑줄 친 ‘딩아 돌하’도 같은 경우인지 의문이 생겼다. 이에 대해 교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쓰시오. (1점)

‘돌하’는 ‘돌ㅎ+아’로 구성되어 있는 말이다. ‘돌ㅎ’은 ㅎ종성 체언(ㅎ말음 체언)이므로, ①, ②와는 다른 예이다.

☞『국어사개설』 p.164

15-(2). 재희는 (나)의 자료에서 ①의 ‘년기’에 대해 의문이 생겼다. 이에 대해 문법적으로 ‘년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그리고 문장 성분은 무엇인지 밝히시오. (2점)

‘너느(명사)+이(주격조사)’가 결합할 때, 체언 끝음절의 모음 ‘으’가 탈락하고 ‘ㄴ’은 첫음절의 받침이 되며, ‘ㄱ’이 덧생겨 결합하는 ㄱ덧생김 체언(ㄱ곡용 체언)이다. 문장 성분은 주어이다. 같은 원리로 곡용하는 체언에 ‘나모’가 있었다.

☞『국어사개설』 p.164

15-(3). 재희는 (나)의 자료를 보면서 중세 국어의 의문문을 만드는 다양한 종결 어미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겼다. 이에 대해 A, B 두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명한다고 할 때, 그 분류 근거를 밝히시오. (2점)

분류	자료 번호	분류 근거
A	①, ③, ⑥	어미가 ‘-아/-어’형으로 끝났으며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의문문
B	②, ④, ⑤	어미가 ‘-오’형으로 끝났으며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의문문. 의문을 나타내는 물음말 ‘엇데’, ‘엇더’ 등이 같이 쓰이고 있음.

☞『국어사개설』 p.179

2007년도 국어사 문제 풀이

【9~10】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분류	어휘 예	규칙
A	ㄱ 닭다, 쫓지, 키웁니다.	받침 ‘ㄱ, ㅋ, ㆁ, ㆁ, ㅈ, ㅊ,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ㄱㄱ<표준발음법> 제8항)
B	ㄴ 깎아, 높여, 밭에	흡받침나 쌍받침이 (ㄴ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과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ㄱㄱ<표준발음법> 제13항
C	ㄷ 젓어미, 옆얼굴, 낱알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들로 시작되는 (ㄷ 실질 형태소)이/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ㄱㄱ<표준발음법> 제15항

10. (가)~(다)를 참고하여 현대 국어, 중세 국어, 외래어 표기법에서 받침소리의 발음과 표기의 관계를 <조건>에 따라 설명하시오. (3점)

<조 건>

- 받침소리로 발음된 자음들, 받침을 표기한 글자들을 쓸 것.
- 받침 표기의 원리나 근거에 대한 설명을 포함할 것.

· **현대국어** : 표기는 표의주의 원리에 따라 형태를 밝혀 적고 발음은 표음주의 원리에 따라 7대표음으로 발음한다(‘ㄷ’ 발음 인정). ‘ㄱ(ㄱ, ㅋ), ㄴ, ㄷ(ㄷ, ㅌ, ㅍ, ㅈ, ㅊ, ㅊ), ㄹ, ㅁ, ㅂ(ㅂ), ㅇ’ (닭다[닥따], 쫓지[쫘찌], 키웁[키웁])

· **중세국어** : 표음주의 원리에 따라 발음대로 표기한다.(8종성법에 따라 현대국어보다 ‘ㅅ’이 더 발음되었다) ‘ㄱ(ㄱ), ㅇ, ㄷ(ㄷ), ㄴ, ㅂ(ㅂ), ㅁ, ㅅ(ㅅ, ㅆ) ㄹ’. (꺾(꺾), 낫(낫), 높(높), 닛(닛), 난(낱))

· **외래어 표기법** : 표음주의 원리에 따라 받침에서 7개의 자음만 표기한다.(현대어 받침 발음과 달리 받침에서 ‘ㅅ’ 표기 나타남). ‘ㄱ, ㄴ, ㄹ, ㅁ, ㅂ, ㅅ, ㅇ’ (bookmaker[북메이커], out[아웃], film[필름], rig[링], hint[힌트], gap[갭])

11. 다음은 중세 국어 문헌에 나타나는 초성 ‘ㅂ’계 합용 병서에 대하여 탐구하려고 수집한 자료이다. 주어진 ‘단서’로 (가)와 (나)를 탐구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ㅂ’계 합용 병서가 어떤 소리를 표기한 글자였는지 쓰시오. (3점)

- (가) ① 곧 이제 ㅁ슬히 반되 ㅎ마 어즈러우니 ㄷ히 그러기와 다뫓 ㅎ뻘
오리로다 卽 今螢已亂好與鴈同來 (두시언해 초간본 8 : 40)
- ② 손과 ㅎ뻘 밥 먹거늘 (與客同飯 ㅎ대) (번역소학 10 : 6)

(나) 뻘쌀, 줍쌀, 뻘씨, 부릅뜨다, 뻘쓸다

자료	단서	탐구 내용
(가)	‘흔뺨>흙썩’에 나타난 ‘ㄴ>ㄹ’	‘뺨’앞의 ‘ㄴ’이 ‘ㄹ’(순음)으로 바뀐 것은, ‘ㄴ’(치음)이 음가를 가지고 있는 ‘ㅂ(순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는 ‘흔뺨’의 ‘뺨’의 ‘ㅂ’이 확실히 발음되어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는 ‘ㅂ’계 합용병서가 어두 자음군을 나타낸 것임을 확실히 보여준다. 다시 말해 ‘뺨’에서 ‘ㅂ’은 선행하는 ‘ㄴ’에 영향을 주어 ‘ㄴ’을 ‘ㄹ’으로 순음화시킨 뒤 사라지고, ‘썩’이 남아서 ‘ㄱ’의 된소리를 표기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 결과 ‘흔뺨’가 ‘흙썩’로 나타난 것이다. ☞『국어사개설』 p.145
(나)	단어 형성상의 특이점	‘뽕쌀, 좁쌀, 뽕시, 부릅뜨다, 휩쓸다’ 모두 공시적 관점에서는 설명되지 않는 ‘ㅂ’을 가지고 있다. 이 말들의 ‘ㅂ’은 역사적으로 ‘쌀, 뽕, 뽕, 뜸-, 뜸-’ 등의 ‘ㅂ’이 화석화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리적으로 설명된다. 이것은 다시 결과적으로 중세 국어에서 ‘ㅂ’계 어두자음군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현대 국어의 ‘입때, 접대’의 ‘ㅂ’ 역시 중세 국어의 ‘뽕’의 ‘ㅂ’이 화석화된 것이다. ☞『국어사개설』 p.145



탐구 결과
초성 ‘ㅂ’계 합용 병서는 (어두자음군)을/를 표기한 글자였다.

12. (가)~(라)의 밑줄 친 부분은 중세 국어에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다른 형태로 쓰였다. 각각의 교체 조건 혹은 분포 조건을 (예)와 같이 설명하시오. (4점)

(가) ① 어린 百백姓성이 니르고져 흙 배 이서도 므츨내 <u>제</u> 뜰들 시러 퍼디 몬흙 노미 하니라(훈민정음 언해)
② 淨淨飯甁王왕이 깃그샤 부텃 소닐 손소 자브샤 <u>즈갓</u> 가스매 다히시고 (월인석보 10 : 9)
(나) ① 식미 기픈 므른 ㅁㅁ래 아니 그츨썻 (용비어천가 2장)
② 二百戶를 어느 ㄴㅅ 請히니 (용비어천가 18장)
③ 불근 ㅅㅅ 그를 므러 寢室 이페 안즈니 (용비어천가 7장)
(다) ① 金금으로 짜 <u>해</u> 식로물 뽐 업게 하면 (석보상절 6 : 24)
② 굴허 <u>에</u> 므를 디내샤 도즈기 다 도라가니 (용비어천가 48장)
③ 野人ㅅ 서리 <u>에</u> 가샤 野人이 굴외어늘 (용비어천가 4장)
(라) ① 더 좋아 닐웨 하마 다든 <u>거</u> 다 (석보상절 24 : 15)
② 길헤 艱간難난흔 사름 보 <u>아</u> 든 다 布봉施싱하더라 (석보상절 6 : 15)

대 상	교체 조건 혹은 분포 조건
(예)관형격 조사	관형격 조사 ‘이’와 ‘의’는 선행 체언 모음과의 모음조화에 따라 선택되었는데, ‘이’는 양성 모음 뒤에, ‘의’는 음성 모음 뒤에 쓰였다. ☞『국어사개설』 p.166, ☞『학교문법의 이해』 pp.418~420
(가) 재귀 대명사	3인칭 재귀대명사 ‘저’와 ‘즈가’는 선행 주어의 성격에 따라 선택되는데, ‘저’는 낮춤을, ‘즈가’는 높임을 나타낼 때 쓰였다. ☞『국어사개설』 p.193, ☞『학교문법의 이해』 p.418~419
(나) 주격 조사	주격 조사 ‘이’, ‘ㅣ’, ‘ㅍ’는 선행 체언의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선택되었는데, 자음 뒤에서는 ‘이’가, ‘ㅣ’모음을 제외한 모음 뒤에서는 ‘ㅣ’가, ‘ㅣ’모음 뒤에서는 ‘ㅍ’가 쓰였다. ☞『국어사개설』 p.166, ☞『학교문법의 이해』 p.418~420
(다) 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 ‘에, 애, 예’는 선행체언의 모음에 따라 선택되었는데 양성 모음 뒤에서는 ‘애’가, 음성 모음 뒤에서는 ‘예’가, ‘ㅣ’ 모음 뒤에서는 순행동화에 의해 ‘예’가 쓰였다. ☞『국어사개설』 p.166, ☞『학교문법의 이해』 p.418~420
(라) 선어말 어미	주관적 믿음 선어말 어미 ‘-거-’와 ‘-아-/-어-’는 용언의 성격에 따라 선택되었는데, 자동사일 때 ‘-거-’가, 타동사일 때 ‘-아-/-어-’가 쓰였다. ☞『학교문법의 이해』 p.421

2008년도 국어사 문제 풀이

10. 다음 이야기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높임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고, 그 근거가 되는 어절을 각각 하나만 찾아 쓰시오. (4점)

<자료 해설> 아래는 아들 ‘나후라(羅睺羅)’를 출가시켜 데려오라는 ‘부터(세존)’의 명을 받고 가비라국에 온 ‘목련(目連)’과 ‘부터’의 아내이자 ‘나후라’의 어머니인 ‘야수(耶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서술한 이야기의 일부이다.

耶輸 | 부터 使者 왓다 드르시고 靑衣를 브려 기별 아라 오라 헝시니 耶輸 | 그 기별 드르시고 (耶輸 |) 門들홀 다 구디 줌겨 뒗터시니 目連이 耶輸入 宮의 가 보니 문을 다 즈막고 유무 드룸 사름도 업거늘 즉자히 神通力으로 樓 우회 느라 올라 耶輸入 알피가 셔니 耶輸 | 보시고 (耶輸 |) 니러 절헝시고 안즈쇼셔 헝시고 世尊人 安否 묻좁고 니르샤티 므스므라 오시니잇고 <석보상절 6:2~3>

	<높임의 의도>	<근거 어절>
예 서술자가 야수에게	있음	드르시고
야수가 청의에게	없음	오라
야수가 목련에게	있음	안즈쇼셔
서술자가 부터에게	있음	부터
서술자가 목련에게	없음	보니

『국어사개설』 p.173

11. 다음 각 예문에서 밑줄 친 부분의 현대 국어 대응형을 쓰고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조사와 그것이 표시하는 의미를 예와 같이 쓰시오. (3점)

- (가) 諸子 | 아비의 便安히 안즌 들 알오 <법화경언해 2:138>
 (나) 變은 常例에서 다를 씨오 <월인석보 1:15>
 (다) 나실 나래 하늘로셔 설흔두 가짓 祥瑞 느리며 <석보상절 6:17>
 (라) 므스 거스로 道를 사마료 <월인석보 9:22>
 (마) 몃 盜賊에 도라갈 길히 업스니 <두시언해 8:13>

	아비의	아버지가
	의: 관형절 서술어의 주체 예 (가) 의미상 주어가 ‘아비의’의 관형어로 실현된 형태이다. 관형격 조사 앞에서 유정 명사의 ‘ㅣ’모음은 탈락되는 것이 원칙이나, ‘아비의’에서처럼 의미상 절의 주어가 될 때는 ‘ㅣ’모음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 『문법』교과서 활용 부분	
(나)	常例에서	常例와
	예서: 주어와 부사어의 비교 중세국어에서 ‘다르-_{ᄃᆞ}(異)’는 ‘애, 애서, 익게, 두고’를 지배했다. 현대 국어에서는 ‘-과(와)’와 호응한다.	
(다)	하늘로서	하늘로부터
	로서: 주어의 행위의 출발점 이시-(有)의 부동사형에서 기원한 ‘-셔’는 명사 및 부사에 직접 연결되기도 했지만, 처격형, 향격형, 특수조사 ‘그에, 거기, 부터, 자회’ 및 부동사 뒤에 자주 연결되어 광범위한 분포를 보였다. ☞ 『국어사개설』 p.183	
(라)	道를	道(도)로
	를: 서술어의 귀착점	
(마)	盜賊에	도적 때문에
	에: 후행절 사건의 원인	

[12~13] 다음 <보기>는 ‘-음’에 의해 만들어지는 파생 명사와 명사형을 탐구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아래의 물음에 답하시오.

— < 보 기 > —	
파생 명사	묶+음 → 묶음 믿+음 → 믿음 얼+음 → 얼음 울+음 → 울음 웃+음 → 웃음 졸+음 → 졸음 죽+음 → 죽음 살+음 → 삶 알+음 → 앎
명사형	먹+음 → (...을) 먹음 잡+음 → (...을) 잡음 달+음 → (...을) 닦음 만들+음 → (...을) 만듦 흔들+음 → (...을) 흔듦 걷+음 → (...하게) 걸음

12. 다음은 위의 <보기>를 보고 제기한 학생의 의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사의 해결 방안 및 수집 자료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과 타당한 결론을 빈칸에 쓰시오. (4점)

학생의 의문	‘살다’와 ‘알다’의 파생 명사는 왜 나머지와 달리 명사형의 모습인가요?
--------	--

교사의 해결 방안	• 공시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은 통시적 관점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시적 현상을 살펴본다 • ‘삶’, ‘앎’이 예전 시기에 발견되는지 찾고 그 용법을 현대 국어와 비교한다.
교사의 수집 자료	◇ 예전 국어 자료 • 너무 설워하야 곁오티 다못 그 홀로 <u>살므로</u>는 출하리 디하의 가 조출 거시라 <동국신속삼강행실도(1617) 열녀도 2:52> • 범을 그리매 가족은 그려도 썩 그리기 어렵고 사름을 <u>알매</u> 늦춘 아라도 먹음은 아디 못흔다 <u>흔느</u>니라 <박통사언해(1667) 하:40~41>
	◇ 현대 국어 자료 • 진정한 <u>앎</u>이 있어야만 올바른 <u>삶</u>을 살 수 있다.

	근대 국어	현대 국어
‘삶, 앎’의 품사	동사	명사
품사 판정의 근거	• 삶: 부사어 ‘홀로’의 수식을 받음. • 앎: ‘사람을 알다’라는 절의 서술어로 사용되어 서술성이 있음.	• 삶: 관형어 ‘올바른’의 수식을 받음. • 앎: 관형어 ‘진정한’의 수식을 받음.

결론	현대 국어의 ‘삶, 앎’은, 현대 국어 시기에 ‘-음’이 붙어서 파생된 명사가 아니라, 근대 국어 시기의 (동사의 명사형이 명사로 굳어진 것)이다. 이는 근대 국어에서 ‘-음’이 아니라, 동사 어간에 ‘-ㅁ’이 직접 결합하여 파생 명사가 된 것이다. 즉, 연결 모음(매개모음)이 없이 결합했다. ☞『국어사개설』 p.222
----	--

13. 위 <보기>의 명사형 ‘걸음’과 ‘닭, 만듦, 흔듦’ 등의 어형상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어형상 ‘걸음’과 같은 특이성을 보이는 명사형을 예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만 더 쓰고, 이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을 쓰시오. (2점)

어형의 특이성	명사형에서 어간 말음이 ‘ㄴ’이면, ‘닭, 만듦, 흔듦’과 같이 실현되는 일이 일반적인데, ‘걸음’으로 실현되었다.
이러한 특이성을 보이는 다른 명사형	예) 걸음(걷+음) • 물음(묻+음), 들음(듣+음)
알 수 있는 사실	특이한 명사형을 보이는 것들은 모두 ‘ㄴ’ 불규칙 용언이다. 어간 말음이 ‘ㄴ’인 용언 중 일부는 모음어미 앞에서 ‘ㄴ’로 변하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명사형 어미 ‘-음’의 매개모음 ‘으’의 영향으로 불규칙 활용이 일어난 것이므로 ‘-음’의 형태가 결합한 어형이 나타난다.